

의미자질 기반 한·중 나눔 동사 대조 연구

이화자 저

덜다 / 減
가르다 / 分
자르다 / 斬
다지다 / 剁

따다 / 掰
도리다 / 剝

의미자질 기반 한·중 나눔 동사 대조 연구

이화자 저

常州大学图书馆
藏书章

 **현국출판사**
홍콩
조선민족

2017 · 할빈

图书在版编目(CIP)数据

基于语义特征的中韩“分”类动词语义对比研究 /
李花子著. — 哈尔滨: 黑龙江朝鲜民族出版社,
2017.10

ISBN 978-7-5389-2347-6

I. ①基… II. ①李… III. ①汉语—动词—语义—研究
②朝鲜语—动词—语义—研究 IV. ①H146.2②H554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2017)第230575号

书 名 /基于语义特征的中韩“分”类动词语义对比研究

著 者 /李花子

责任编辑 /朱梅花

责任校对 /宋英爱

封面设计 /崔林军

出版发行 /黑龙江朝鲜民族出版社

发行电话 /0451-57364224

电子信箱 /hcxmz@126.com

印 刷 /黑龙江远东联达教育文化传媒有限公司

开 本 /787mm×1092mm 1/16

印 张 /12

字 数 /250千字

版 次 /2017年10月第1版

印 次 /2017年10月第1次印刷

书 号 /ISBN 978-7-5389-2347-6(民文)

定 价 /27.00元

차례

제1장 서론	1
1.1 연구 목적	1
1.2 선행 연구	3
1.3 연구 방법	6
제2장 나눔 동사 개념과 범위	15
2.1 나눔 동사 개념과 특성	15
2.1.1 나눔 동사 개념	15
2.1.2 나눔 동사 특성	19
2.2 나눔 동사 범위	22
2.2.1 나눔 동사 선정 방법	22
2.2.2 나눔 동사 목록	23
제3장 나눔 동사 기본 의미 평정과 분류	29
3.1 나눔 동사 기본 의미 평정	29
3.1.1 한국어 나눔 동사 기본 의미 평정	32
3.1.2 중국어 나눔 동사 기본 의미 평정	69
3.2 나눔 동사 하위분류	92
3.2.1 1차적 하위분류	92
3.2.2 2차적 하위분류	95

제4장 한·중 분리성 동사 의미 체계 대조	101
4.1 국부적 분리성 동사 의미 체계	102
4.1.1 표면제거성 동사 의미 체계	103
4.1.2 비표면제거성 동사 의미 체계	109
4.2 전체적 분리성 동사 의미 체계	121
4.2.1 방향성 동사 의미 체계	122
4.2.2 비방향성 동사 의미 체계	126
4.3 한·중 분리성 동사 의미 특성	134
제5장 한·중 분할성 동사 의미 체계 대조	141
5.1 절단성 동사 의미 체계	143
5.1.1 정밀성 동사 의미 체계	144
5.1.2 비정밀성 절단 동사 의미 체계	146
5.2 분쇄성 동사 의미 체계	162
5.2.1. 방향성 동사 의미 체계	163
5.2.2 비방향성 동사 의미 체계	166
5.3 한·중 분할성 동사 의미 특성	172
제6장 결론	177
참고문헌	181
영문 초록	187

제1장 서론

1.1 연구 목적

본고에서는 구조 의미 분석의 바탕 위에서 한국어와 중국어의 나눔 동사들을 대상으로 각각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대조 분석의 관점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어와 중국어의 동사 중에서 [대상 나눔]의 의미 속성을 갖는 동사들을 하나의 의미 영역으로 묶어 그들의 기본 의미를 바탕으로 의미 체계를¹⁾ 대조, 분석할 것이다.

나눔 동사는 ‘행위자가 대상을 둘 또는 그 이상의 개체로 나눔’을 의미 특성으로 하는 동사의 한 부류로서 인간이 대상의 나눔에 대한 다양한 인지 체계를 잘 보여준다. 후술될 것이지만 [대상 나눔]의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들은 대상을 나누는 방식, 나눔의 결과 양상, 대상의 속성 등 요소에 의해서 다양한 의미 차이를 가진다. 따라서 한국어와 중국어의 어휘 분절에 개입하는 다양한 의미 요소들을 살피기에 적절할 것이며, 이를 대조 분석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그 의미 특성이 더 잘 드러날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본고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나눔 동사들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

1) 어휘는 일정한 형태에 일정한 의미가 대응되어 있으므로 어휘에 체계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의 관점이 적용될 수 있는데, 하나는 형태를 기준으로 체계화하는 것으로 보통의 어휘 사전에서의 처리 방법이고, 다른 방법은 의미를 기준으로 체계화하는 것이다(고창운, 2006). 또한 의미를 기준으로 의미 체계를 수립할 경우에 최호철(2014: 6)에서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하나는 형태소가 갖는 모든 의미 즉 단어의 기본 의미와 확장 의미를 모두 고려하여 수립된 의미 체계이고, 다른 하나는 형태소가 갖는 하나의 기본 의미를 대상으로 수립된 의미 체계이다. 본 논문에서는 후자의 경우로서, 나눔 동사의 기본 의미를 대상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아 그들의 어휘 체계를 대조 분석하고자 한다. 이들 동사들은 내적 의미 특성에 따라 먼저 대상 나눔의 초점이 분리에 있는지 분할에 있는지에 따라 구분되며 각각의 의미 영역 안에서 다양한 나눔 방식이나 나눔의 결과 양상에 의해 구분된다. 또한 이러한 기준 이외에 동사의 의미를 보충하는 논항의 의미 특성에 따라 구별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논항의 의미 특성을 동사가 갖는 선택 제약으로 보고 이를 나눔 대상에 대한 선택 제약과 도구에 대한 선택 제약으로 나누어 분석할 것이다.

지금까지 [대상 나눔]의 의미를 갖는 동사에 대한 연구를 보면 크게 두 가지 면에서 다루어졌다. 개별적인 몇 개의 동사를 대상으로 유의어의 측면에서 의미 분석을 다룬 연구나, 나눔의 하위 부류에 속하는 절단의 의미 자질을 가지는 동사들을 하나의 의미망으로 묶어 낱말밭을 다룬 연구들이 있었다. 그러나 [대상 나눔]의 의미를 가지는 동사들을 하나의 의미 영역으로 묶어서 어휘 체계를 다룬 연구는 별로 없었으며, 특히 대조 분석의 관점에서 다룬 연구는 없었다. 그리하여 한국어와 중국어의 나눔 동사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대조 언어학적인 측면에서 나눔 동사들을 대조·분석한다면 그들의 의미 분절 양상이 더 잘 드러날 것이다.

이로써 한·중 양국의 언어에서 대상 나눔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 양상을 띠고 있는지,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한국어와 중국어 동사 간의 미세한 의미 차이를 밝혀 학습자에게 어려운 항목으로 판단되는 부분 즉 모어의 간섭에 의해서 오류가 발생하는 부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한 민족의 언어는 그 민족의 사상, 감정을 표현하는 도구가 된다. 이 연구를 통해 한·중 두 민족의 대상의 나눔에 대한 인지 체계를 이해하고 아울러 나눔 동사의 어휘 체계를 수립하는 데 보다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본고의 주된 목적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부차적인 목적은 연구된 자료를 통해 중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이나 한국인을 위한 중국어 교육, 한·중 번역 사업 등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1.2 선행 연구

본고에서는 어휘 의미론의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어와 중국어 동사 중에서 기본 의미가 [대상 나눔]의 의미를 가지는 동사들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아울러 대조 분석을 통해 양국 언어의 어휘 체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어와 중국어의 나눔 동사의 의미 특성을 밝히고자 한다.

이에 본고와 관련이 있는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어 나눔 동사에 대한 연구는 주로 유의어의 측면에서 다룬 연구, 나눔 동사의 하위 부류에 속하는 동사들을 하나의 의미 영역으로 묶어 의미 분절 양상을 다룬 연구 그리고 나눔의 의미 속성을 지닌 몇몇 개별 동사들을 대상으로 기본 의미와 확장 의미 또는 인지 의미론의 측면에서 의미 분석을 시도한 연구가 있다.

[대상 나눔]의 의미 자질을 갖는 몇몇 동사들을 유의어의 측면에서 다룬 연구에는 곽효철(1988), 정병도(1986), 김준기(2000), 안리주(2012) 등이 있다. 곽효철(1988)은 한국어 동사 중에서 대상의 분리와 유의 의미의 관계가 있는 ‘떼다, 뜯다’를 대상으로 어휘 의미론적 안목에서 의미 공유의 장과 의미의 변별적 성분을 밝히고 통어론적 안목에서 이 동사가 선택하는 동작 대상과의 선택 제한의 관계를 해명함으로써 이 두 동사의 의미 특성을 밝히고 있다. 정병도(1986)에서는 한국어를 대상으로 대상의 나눔과 유의 관계에 있는 동사들의 쓰임의 차이를 밝혔는데, 특히 동사가 선택하는 동작 대상과의 선택 제약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다. 나눔 동사를 [분리] 동사군, [절단] 동사군, [분할] 동사군으로 나누어 각 의미 영역 안에서 유의어들이 쓰이는 의미와 차이를 분석하였는데, 나눔 동사의 하위 구분에서 [분리], [절단], [분할]의 분류 기준이 명확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 김준기(2000)에서는 15개 타동사 유의어 쌍의 의미 속성을 고찰하고 있다. ‘이동 동사’, ‘분리 동사’, ‘접촉 동사’,

‘은닉 동사’에 해당되는 15쌍의 타동사 유의어들을 대상으로 각각의 타동사 유의어 쌍 사이의 의미적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피고 있다. 안리주(2012)에서는 한국어를 대상으로 [분리]의 의미 자질을 지니는 {깨다: 부수다}, {가르다: 나누다}, {찢다: 찌다}를 중심으로 공통 의미와 개별 의미를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 방안을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는데, 언어 이론을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대상 나눔]의 의미 자질을 갖는 동사들을 하나의 의미 영역으로 묶어 의미 분절 양상을 보인 연구로는 서태길(2012), 김진수(2002) 등이 있다. 서태길(2012)에서는 대상 나눔의 하위 부류에 속하는 [도구성] 절단의 의미를 가지는 동사들의 낱말발 구조를 탐구하였다. 하나의 대상이 두 개 이상으로 분리되는 [분리성]을 근간으로 [예리성], [정형성], [방향성]을 통해서 15개의 고유어 절단 동사를 한 의미 영역으로 묶어 절단 동사의 의미 분절 양상을 살피고 있다. 김진수(2002)에서는 ‘요리’라는 의미 영역에 국한하여 요리와 관련된 어휘 가운데 ‘나눔’의 의미를 지닌 어휘만을 대상으로 하여 의미 분석을 하였다.

[대상 나눔]의 의미 속성을 지닌 몇몇 동사들을 대상으로 기본 의미와 확장 의미 또는 인지 의미론의 측면에서 의미 분석을 시도한 연구로 김송원(1986), 신현숙(2001), 황순희(2014), 전정미(2002) 등이 있다. 김송원(1986)에서는 동사 ‘풀다’의 제반 의미를 통어적인 면에서 파악하고, 그 파악된 의미들의 공통 특질을 통하여 ‘풀다’의 기본 의미를 귀납하는 동시에 의미 변화의 유형과 계기를 파악하였다. 신현숙(2001)에서는 [두 개의 개체를 접촉하여 하나의 개체로 결합함]을 공통 의미로 지니는 {잇다/매다/묶다/엮다}와 [하나의 개체가 두 개체로 분리됨]을 공통 의미로 지니는 {끊다/풀다}를 대상으로 공통 의미와 개별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폈다. 황순희(2014)에서는 분리성 동사 중 유의성이 강한 다의 동사인 ‘뿔다’, ‘빼다’, ‘뜯다’를 선택하여 그들의 의미 확장 양상을 분석하였는데, ‘뿔다’, ‘빼다’, ‘뜯다’의 개별 의미를 공기하는 논항 명사의 의미적 선호성을 통해 분석하여 동사 간 유의성을 파악하였다. 특히 코퍼

스 용례를 근거로 원형 의미로부터 의미 확장 양상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전정미(2002)에서는 한국어 분리 동사 {자르다/베다}로 이루어지는 구문의 의미적 특성을 찾아보고 서로 다른 문맥에서 사용될 때의 차이점을 인지적인 모형으로 파악하였다. 동사 {자르다/베다}는 피영향자에 해당하는 대상물의 원래 형태로부터 분리라는 공통적 의미를 갖지만/무엇에 초점이 놓이느냐에 따라 다르게 쓰인다고 보는데, ‘베다’는 분리되는 과정에 초점을 둔 동사이고, ‘자르다’는 분리된 결과에 초점을 둔 동사로서 ‘베다’보다 더 확장된 쓰임을 보인다고 하였다. ‘자르다’와 ‘베다’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보다 넓은 분리 영역에서는 그 윤곽을 달리할 수 있겠으나, 분리라는 속성을 바탕으로 보고, 분리의 결과에 초점을 두는지 아니면 분리의 과정에 초점을 두는지 윤곽에 따라 의미 차이를 분석하는 방법은 분리 동사를 하위분류하는 방법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큰 의의를 갖는다고 본다.

이들 연구는 공히 대표적 나눔 동사의 유의 관계를 통사·의미적으로 분석, 기술하였고, 개별 동사의 공통 의미와 개별 의미를 추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들 선행 연구는 특정된 개별 어휘 몇 개만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공통 의미와 변별 의미를 밝히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대상 나눔]의 의미 자질을 갖는 동사들을 전반적으로 추출하여 나눔 동사의 의미 체계를 전체적으로 보여주지 못했다. 또한 나눔 동사를 변별하는 체계적인 분류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본다.

중국에서는 나눔 동사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특히 현대 중국어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그동안 한국어와 중국어는 어휘론에서 주로 한자 어휘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해왔지만 의미론적 입장에서 고유어를 위주로 한 한·중 대조 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어휘 의미론의 입장에서 고유어를 중심으로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대상 나눔]의 의미 자질을 갖는 동사를 대조 연구함으로써 기존 연구의 미비한 점을 보완할 수 있기를 바란다.

1.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어휘 의미론의 바탕 위에서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대상 나눔]의 의미 자질을 갖는 동사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기본 의미를 바탕으로 어휘 체계를 대조 분석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둔다. 논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을 얻고자 한다.

첫째,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대상 나눔]의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그 동사들의 기본 의미는 무엇인가?

둘째, 상술한 기본 의미와 상위 분류 기준을 바탕으로 한 한국어와 중국어의 나눔 동사들의 어휘 체계는 어떤 양상을 띠고 있는가?

셋째, 한국어와 중국어의 어휘 체계를 대조 분석한 결과 공통된 의미 특성은 무엇이고 상이성은 무엇인가?

이상의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점에 주안점을 두고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질문은 본고의 연구 대상인 나눔 동사의 개념과 범위를 정하고 그 기준에 부합되는 동사들을 선정하여 그들의 기본 의미를 면밀히 검토하여, 하위분류하는 것으로 답할 수 있을 것이다. 전체 동사 내에서 기본 의미가 [대상 나눔]의 의미를 갖는 고유어 동사들을 추출해냄으로서 연구 대상을 확정하고 그 범위를 명확히 한다.²⁾ [대상 나눔]의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들은 나눔의 초점을 어디에 두는지에 따라 몇 개 의미

2) 연구 대상을 확정하려면 우선 여러 개의 단어들이 동일한 의미 영역으로 묶이는 그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단어가 하나의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기준이 불필요하지만, 여러 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경우, 사람에 따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의미 영역에 대한 선택일지라도 선정된 단어 역시 상이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은 반드시 필요하며, 본고에서는 그 기준을 단어의 기본 의미로 한정할 것이다.

영역으로 하위분류된다. 이 부분은 본고의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는 선정된 나눔 동사들의 의미 체계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두 언어의 대조 분석의 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단어들의 기본 의미에 근거하여 하위분류된 의미 영역 안에서 한국어와 중국어 동사들의 의미 체계를 그려본다.

셋째는 상술한 한국어와 중국어 나눔 동사들의 의미 체계를 대조 분석하여 어떤 공통된 의미 자질을 가지며, 어떤 변별적 자질에 의해 구분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한국어와 중국어 나눔 동사들의 의미 특성에 대해 살펴본다. 기본 의미에 의한 양 언어를 대조 분석했을 때 한국어 동사에 대한 중국어 동사의 빈자리 혹은 중국어 동사에 대한 한국어 동사의 빈자리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은 연구 대상 외의 다른 단어나 단어가 아닌 구로 대체 가능할 것으로 본다.

본고의 연구 대상인 한국어와 중국어 나눔 동사들의 어휘 체계를 대조하여 그들의 의미 특성을 밝히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우선 언어 교육과 학습에서 대표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한국어의 『표준국어대사전』(이하 『표준』으로 약함)과 중국어의 『현대한어사전』(이하 『현대』로 약함)에 기술되어 있는 나눔 동사의 의미를 면밀히 검토하여 각 단어의 기본 의미를 평정할 것이다. 한 어소로 묶일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어소로 나누어 구분하였고, 또한 한 어소내의 단의 분류가 적절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단의를 다시 평정하여 기본 의미를 밝히도록 하겠다. 3장의 기본 의미 평정 부분에서 나오는 한국어 동사 ‘가르다’를 예로 잠시 들면 다음과 같다. ‘가르다’의 『표준』에서의 뜻풀이는 다음과 같다.

(1) ‘가르다’의 뜻풀이

- ① 쪼개거나 나누어 따로따로 되게 하다. ¶ 수박을 다섯 조각으로 갈라 나누어 먹었다./마을 사람들을 여자와 남자로 갈랐다.

- ② 물체가 공기나 물을 양옆으로 열며 움직이다. ¶ 비행기가 굉음과 함께 허공을 가르며 날아올랐다./화살이 과녁을 향하여 바람을 가르고 날아갔다.
- ③ 옳고 그름을 따져서 구분하다. ¶ 결투로 잘잘못을 가르던 때도 있었다.
- ④ 승부나 등수 따위를 서로 겨루어 정하다. ¶ 경기 시작 무렵에 터진 골이 이날의 승부를 갈랐다.
- ⑤ 양쪽으로 열어젖히다. ¶ 생선의 배를 가르고 내장을 뺐다.

『표준』에서 ‘가르다’는 하나의 어소로 분류되었다. 5개의 단의 가운데 ①, ⑤의 의미가 행위자가 구체적인 대상을 나누는 행위로서 기본적으로 쓰인다.

(2) ㄱ. 수박을 다섯 조각으로 갈라 나누어 먹었다.

ㄴ. 마을 사람들을 여자와 남자로 갈랐다.

(2ㄱ)은 ‘사람이 수박을 쪼개다’의 의미를 나타낸다. 즉 ‘행위자가 하나의 대상을 나누어 따로따로 되게 함’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원래부터 하나로 간주되는 대상을 절단하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할], [+절단]의 의미 속성을 지닌다. 그러나 (2ㄴ)은 ‘사람들을 나누다’의 의미를 나타낸다. 즉 ‘행위자가 하나의 대상이 아닌 여러 대상들의 결합을 나누어 따로따로 되게 함’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여러 대상들의 결합체를 나누어 구분하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할], [+구분]의 의미 속성을 지닌다. 그러므로 (2)은 모두 ‘어떠한 대상을 따로따로 되게 함’의 의미를 가지지만, 이 둘을 하나의 의미로 묶을 수 없으므로 구분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나눔 동사가 행위자로는 [사람]이 올 때 가장 전형적이며, 행위자의 동작에 영향을 받는 대상은 구체적인 [사물]일 때 가장 전형적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수박을 가르다’와 같이 행위자가 구체적인 물체를 나눔을 기본 의미로 보고 (2ㄴ)과 같이 ‘대상을 따로 나누어서 구분지음’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을 기본 의미에서 파생된 의미로 보겠다.

(3) 생선의 배를 가르고 내장을 뺐다.

‘가르다’의 ⑤는 ‘행위자가 대상(하나로 간주되는 대상의 표면)을 나누어 따로따로 되게 함’의 의미를 나타낸다. 대상 전체가 아닌 대상의 표면을 절단하는 것으로 절단의 의미가 희박하지만, 대상 표면을 전체로 봤을 때 역시 행위자가 대상 나눔의 의미를 가진다.

그러므로 ‘가르다’의 단의들은 다음과 같이 배열된다³⁾.

(4) ‘가르다’의 단의 재배열

- ① (행위자가 대상을) 베거나 쪼개어 따로따로 되게 하다. ¶ 수박을 다섯 조각으로 갈라 나누어 먹었다./생선의 배를 가르고 내장을 뺐다.
- ② (행위자가 대상을) 따로 나누어 서로 구분을 짓다. ¶ 마을 사람들을 여자와 남자로 갈랐다.
- ③ 물체가 공기나 물을 양옆으로 열며 움직이다. ¶ 비행기가 굉음과 함께 허공을 가르며 날아올랐다./화살이 과녁을 향하여 바람을 가르고 날아갔다.
- ④ 옳고 그름을 따져서 구분하다. ¶ 결투로 잘잘못을 가르던 때도 있었다.
- ⑤ 승부나 등수 따위를 서로 겨루어 정하다. ¶ 경기 시작 무렵에 터진 골이 이날의 승부를 갈랐다.

그러므로 여기서 ‘가르다’의 기본 의미는 단의 ①에서 찾을 수 있으며 ‘행위자가 대상을 베거나 쪼개어 따로따로 되게 하다’가 된다. ②는 대상이 ‘사람’이어서 드러난 것이고, ③은 대상이 ‘허공’이어서 드러난 것이며, ④는 대상이 ‘잘잘못’이어서 드러난 것이고, ⑤는 대상이 ‘승부’여서 드러난 것이다.

3) 본고에서는 연구 대상의 기본 의미를 바탕으로 어휘 체계를 분석하기 때문에 기본 의미 기술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그 기본 의미를 평정하여 다시 배열한다. 다만, 기본 의미만을 대상으로 하며, 기본 의미에서 파생된 의미들의 기술이나 배열 순서는 고려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한다. 또한 실제 용례에 기반한 의미 조정의 필요성에 따라 뜻풀이를 일부 수정하였다.

다음으로 분석된 내용에 근거하여 연구 대상 동사들을 하위분류하고 의미 영역별로 대조 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구체적인 의미 분석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첫째, 의미 성분 분석의 방법으로 한국어와 중국어 동사의 공통적 의미 자질과 변별적 의미 자질을 찾아냄으로써 어휘 체계를 세우는 기준을 밝힌다. 의미에 대한 ‘성분 분석 이론’은 언어학에서 1차적인 혁명이라고 일컬어지는 구조·기술주의 언어학의 가장 중요한 방법인데, 곧 언어를 하나의 유기체로 보는 것이다. 낱말의 의미는 단일한 개념이 아니고 보다 원초적이고 보편적인 개념들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것이라는 생각이 의미 성분 분석 이론의 기본적인 발상이다(염선모: 1984). 각각의 동사의 사전적 의미와 용례를 통해서 각 어휘에 어떤 의미적 특징이 있는지 살펴본다. 특히 강한 유의 관계를 갖고 있는 동사들은 어휘 치환 검증법⁴⁾을 통해서 논의한다. 치환 검증법을 통해 문장 안에서 어휘의 대치가 가능한지를 살펴보고 그 의미 차이를 알아냄으로써 변별적 자질을 밝힌다.

둘째, 대조 언어학의 연구 방법을 준수할 것이다. 대조 언어학이란 두 개 혹은 두 개 이상의 언어에 대해 음성·음운, 어휘, 문법 등의 언어 체계, 나아가서는 그것을 사용하는 행동인 언어 행동의 다양한 측면을 대조하여 어느 부분과 어느 부분이 서로 대응되는지, 혹은 대응되지 않는지를 밝히는 언어 연구의 한 분야라고 정의할 수 있다.

대조 언어학은 영어로는 (contrastive linguistics)라고 한다. 이 외에 두 개 이상의 언어를 비교하는 연구 분야로 비교 언어학(comparative lin-

4) 보통 유의어의 의미 변별 수단으로 반의 검증법(opposite test method), 나열 검증법(arrange test method), 문법체계 검증법(grammar system test method), 치환 검증법(substitution test method)이 있다. 이 중에서 치환 검증법은 여러 문맥 환경 가운데 동의어 한 쌍을 골라 서로 바꿔 놓아 보는 방법이다. 치환 후에 바른 문장(well-formula)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용인되면 동의성이 있는 한 쌍의 어휘로 판정하는 방법인데, 이 검증법은 유의어 간의 의미 차이를 판별해 내는 데에도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성분 분석 방법의 중요한 토대와 기반이 된다(자세한 것은 김준기 2000: 42~58 참조할 것).

guistics)이 있는데 각 언어 사이의 음운 대응 법칙을 추구하고 그들 언어의 역사적 유연관계를 밝히는 연구 분야이다. 비교 언어학은 역사 언어학이며, 대상이 되는 언어는 역사적으로 같은 계통이거나 그러한 관계가 예상되는 것에 한정된다. 이에 비해 대조 언어학은 역사적인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언어 체계 끼리를 대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언어라도 서로 대조 연구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허용·김선정(2013: 3)에서는 이 두 가지 언어학의 특징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5) 비교 언어학과 대조 언어학

	비교 언어학	대조 언어학
관심 영역	해당 언어 간의 공통점	해당 언어 간의 차이점
목적	보편성과 특수성 등 언어에 대한 이해	외국어 교육 등 실용적인 분야에서의 활동
접근 방법	통시적 접근	공시적 접근
언어학적 분류	이론 언어학	응용 언어학

언어를 비교한다는 점에서 볼 때, 또 하나의 인접 분야로 유형학(类型学)(typology 혹은 linguistic typology)이라는 것이 있다. 여러 언어 간의 유사점을 유형적인 관점에서 보려고 하는 것이다. 역사적인 유연관계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조 언어학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지만 유형학이 유형의 보편성을 추구하는 데 비해 대조 연구는 언어의 개별성을 추구하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롯한 구체적인 사실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약간 방향을 달리한다고 하겠다.

언어 연구의 목적은 요컨대 언어를 연구하는 것이며, 당연한 목적에 따라 이론 언어학(理论语言学)과 응용 언어학(应用语言学)으로 나눌 수 있다. 이론 언어학은 언어 연구, 혹은 언어 분석의 이론적 측면을 중심

으로 하는 것이고, 응용 언어학은 언어 연구의 성과를 인간생활의 여러 가지 구체적인 해결을 위해 적용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나뉘었다고 해서 서로 별개의 학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언어 연구라고 하는 하나의 학문의 두 개의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론의 배경이 있고 나서 응용이 가능한 것이고, 응용이 가능함으로써 비로소 이론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이다.

대조 언어학은 후술하는 것처럼 외국어 교육에 대해 언어학적 측면에서 학문적인 배경을 부여하려고 하는 데서 발전한 것이다. 따라서 응용 언어학의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고, 나아가서 언어학이 외국어 교육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과제를 둘러싸고 대조 연구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방법론을 모색하고 발전시켜 왔다고 할 수 있다.

허용·김선정(2013: 4)에서는 이 두 가지 언어학의 특징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6) 언어 유형론과 언어학과 대조 언어학

	언어 유형론	대조 언어학
관심 영역	언어 간의 공통점	해당 언어 간의 차이점
중심 분야	보편성, 전체적인 조감도	외국어 교육 등 실용적인 분야에서의 활동
접근 방법	공시적 접근	공시적 접근
언어학적 분류	이론 언어학	응용 언어학